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2-07>

2002. 1. 30

KIEP 북경사무소

중국 貨幣政策委, 금년도 금융통화정책 확정

1. 개요

□ 중국 인민은행의 화폐정책위원회가 지난 1월 중순 제1차 연례회의를 통해 금년도 금융통화정책을 확정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2001년도 금융정책에 대해 ▲내수 확대 방침에 따른 신축적 통화관리, ▲대출 구조조정 적극 추진,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금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함.
- 또한 금년도 통화 증가율을 13% 내외, 현금 통화 증가규모는 1,500억 원이내,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2. 금년도 주요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2001년도 평가

□ 금번 화폐정책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환율 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 유지, ▲경제 성장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위원들은 최근 엔저 등 주요국의 환율 추이를 분석하여 인민폐 환율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환율시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수지 균형 유지의 중요성도 언급함.
- 또한 WTO 가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 ▲금융정책 효율성 제고,

▲국유은행의 개혁 가속화, ▲국유은행 경영 시스템 선진화, ▲틈새 시장 개척 및 자금 운용 효율성 증대 등도 논의됨.

- 각 은행 지·분점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금의 합리적 운용이 강조되었으며, 각 은행 지·분점의 업적 평가제도 개선도 제기됨.

□戴행장이 제시한 금년도 금융통화정책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금년도 M2 증가율을 13~14%, M1 증가율을 14~15%에서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 인민은행은 금년도에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공개시장 조작 기능 강화, ▲국내 인민폐 및 외환 금리 자유화의 점진적 실시, ▲중소은행에 대한 재대출 확대, ▲금융정책에 대한 정보, 분석, 감독 기능 강화 및 분석내용의 공개체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임.
- 인민은행은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 합리화를 유도,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 첫째, 상업 및 정책은행의 국채발행 관련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R&D, 특히 하이테크 중소기업 및 농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
- 둘째, 은행 대출의 합리화를 통해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촉진
- 셋째, 농촌신용협작사의 농가 대출을 권장, 농가의 대출 어려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학자금 융자 장려정책을 구체화
- 다섯째, 소비형 신용대출 확대하고 서부대개발을 위한 각종 금융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 또한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 개혁을 추진, 금융당국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국유은행의 불량대출 비율을 2~3%포인트 감소시키고, ▲1월 1일부터 대출 분류 5등급제가 전면 실시되고 새로운 회계제도를 엄격 적용, 대손충당금 제도를 시행하며, ▲5월 1일부터 《주식제 상업은행의 경영 지침》, 《주식제 상

업은행의 독립 이사제, 외부 감사제 시행 지침》등을 적용, 주식제 상업은행의 경영 규범화를 추진하고, ▲금융부문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WTO 가입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금융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감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은행, 상장은행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것임.

- 인민은행은 외환관리를 강화하여 국제수지 균형 및 인민폐 환율 안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아세안+3 협력 등 국제 금융협력에 적극 참여, 아시아 금융 시장 안정에도 노력한다는 입장임.
- 그밖에도 금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금년 2월에는 전국의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中國銀聯” 시스템을 정식 출범시키고, ▲금년 말까지 은행의 카드사용 지역을 300개 도시로 확대하고, ▲100개 도시에도 다른 은행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한편, 戴행장이 밝힌 2001년도 금융정책의 운용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통화 증가율은 연초 목표를 달성하였는바 M2 증가율은 14.4%, M1 증가율은 12.7%에 달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예금 규모는 16.9% 증가한 5조 2,000억 元, 개인 저축예금은 14.7% 증가한 7조 4,000억 元이었음.
- o 2001년 말 전국 농촌신용협작사 대출총액은 전년대비 1,400억 원 증가한 1조 2,000억 元에 달했으며, 각종 소비대출 총액은 6,990억 元, 그중 개인 주택소비 대출총액은 5,598억 元에 달함.
- 또한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용 효율성이 증대되었는바, 2001년 말 불량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907억 元이 감소하여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3.8%포인트 감소한 25.4%를 기록하였으며, 4대 국유 은행의 이윤 규모는 266억 元에 달할 전망이다.
- 외국인투자 급증,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의 영향으로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28.1% 증가한 2,122억 달러에 달하였음. 특히 인민폐 환율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표> 중국의 주요 금융지표

(단위: 억 元, 억 달러, %)

항 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2001년말
총 통 화 (M2)	90,995 (15.3)	104,498 (15.3)	119,898 (14.7)	134,610 (12.3)	139,000 (13.2)	147,810 (14.7)	152,000 (13.6)	158,302 (14.4)
통 화 (M1)	34,826 (22.1)	38,954 (11.9)	45,837 (17.7)	53,147 (16.0)	53,000 (17.4)	55,187 (14.9)	57,000 (12.3)	59,872 (12.7)
금융기관 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93,734 (12.5)	99,371 (13.4)	102,000 (13.9)	107,000 (13.7)	109,000 (12.3)	112,315 (11.8)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108,779 (13.7)	123,804 (13.8)	129,000 (14.7)	135,190 (15.1)	139,000 (15.9)	143,617 (16)
민간저축 잔액	46,280 (20.1)	53,408 (17.1)	59,622 (11.6)	64,332 (7.9)	67,000 (9.4)	69,629 (10.8)	71,000 (12.7)	73,762 (14.7)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잔액	-	-	-	-	1,293 (19.8)	1,340 (17.9)	1,348 (12.0)	1,349 (5.2)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각 연도 중국통계연감, 2001년 수치는 중국인민은행 발표자료.

3.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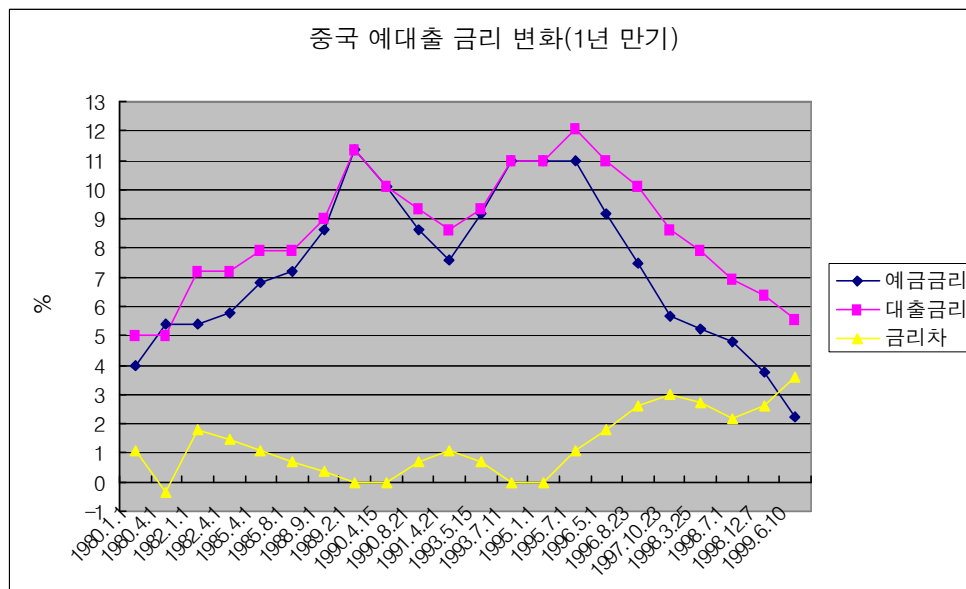
□ 《金融時報》(2001년 1월 21일자)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금년도 금융정책 운용 과정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공개시장 조작 등 통화정책 전달 시스템 개선, ▲WTO 가입의 본격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경제성장률 등 정부 정책 목표 고려,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분석, ▲금리 자유화 실시 속도 조절, ▲금융감독 및 법규의 제정비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중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년 연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금리인하 주장의 배경은 ▲소비 부진에 따른 디플레 우려, ▲기업의 금리 부담 가중, ▲최근 재정정책의 효율성 감소 등임.

o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에 -0.1%를 기록한 이래 11월과 12월에 연속 -0.3%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도 작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약 2,900억 元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사실 금리 인하 문제는 작년 금융통화위원회 4차 연례회의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0.125~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음.



□ 戴행장은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2.25%로 이자세율(20%)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1%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년내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함.

- o 그러나 오는 2005년까지 대출금리 변동폭을 확대하고, 예대금리의 상하한선을 도입하는 등 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함. (***)